

# “수험생을 안전하게”

익산시 수능 종합대책 추진…자율방법대화 협조체계 구축



익산시가 17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종합지 원대책을 추진했다.

특히 교통 소외지역 수험생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수송대책과 시전 안전 점검으로 수험생들이 치질없이 시험을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시는 시내권보다 교통이 열악한 15개 읍면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37명의 수험생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3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했다.

읍면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오전 점검으로 수험생들이 치질없이 시험을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시는 시내권보다 교통이 열악한 15개 읍면지역 수험생을 대상으로 특별 수송대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37명의 수험생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13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파악되면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대책을 수립했다.

읍면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오전 점검으로 수험생들이 치질없이 시험을 마무리하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전 6시부터 9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해 수험생에게 변경된 버스 노선을 안내했으며 긴급차량을 배치해 모든 상황에 대비했다.

버스 연착 등을 대비해 15개 읍면 지역별 대체 차량과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당일 2명의 학생을 안전하게 수험장에 입장장을 주는 불법 구조물 철거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앞서 시는 일시청소년쉼터나 팀들이 주관하는 연합아웃리치 활동의 일환으로 영등동 일대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는 지역을 둘러 출입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시험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한다”며 “시험 이후에도 안전특별기금을 운영해 학생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한 시전점검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농촌지역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순조’

고령화 마을 과소화 등 농촌기반시설 확충

군산시는 17일 고령화, 귀농·귀촌 증가, 마을 과소화 등 농촌 내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 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만들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오다 지난 2020년부터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별 맞춤형 농촌개발사업이다.

마을당 5억원을 투입해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예정이다.

올해에는 대이번 더불어민주당과 옥구읍 오산면을 대상으로 마을 애길 확·포장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조성, 마을 내 가로등 정비 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다.

오는 12월 말 경에는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공식 SNS, ‘나의 수능 해방일지’ 이벤트 진행

익산시가 수능 끝난 수험생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7일까지 ‘나의 수능 해방일지’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나의 수능 해방일지’ 참여자는 익산 시청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을 추가해 수능 끝나고 익산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댓글로 적어 이벤트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참여한 수험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디아로움 2만 포인트를 지급한다.

참여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익산시

청 채널 추가와 2023년 수학능력시험 수험표를 인증해야 한다. 디아로움 포인트 지급을 위해 디아로움 카드를 신규 발급하거나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이벤트 경품으로 디아로움 포인트로 지급하기로 해 디아로움 카드가 없는 학생들은 디아로움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계기와 SNS를 통해 매주 다양한 익산 소식을 받아볼 수 있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 홍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제 수능에서 해방된 수험생 여러분께 익산시 공식 SNS를 통해 문화·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해 익산에서 즐거운 추억 만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 마련으로 시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해 익산시 시정소식과 문화행사, 관광지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다이로움… 시민의견 묻는다

28일까지 카드 소비실태·인식 등 설문참여 이벤트 진행

익산시가 착한소비운동 분위기 확산과 보다 나은 정책발굴을 위해 ‘익산다이로움(익산시립상품권)’ 설문참여 이벤트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디아로움 설문참여 이벤트는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익산다이로움 카드 소비실태와 디아로움 정책 민족도 및 제안 등을 묻는다.

익산다이로움 가입자 수는 지난 14일 기준 19만8728명이며 올해 발행액은 5064억원이다.

총 누적 발행액 1조 397억원을 달성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역 민간소비 경제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회계의 정책 고도화를 위해 이번 설문결과를 운영 정책 수립 및 정책발굴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설문 참여는 시민 누구나 시 홈페이지 또는 익산다이로움 앱 등 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소비촉진유도를 위해

설문 참여자 중 익산다이로움 가맹점에서 2만원 이상 결제한 1,500명을 선정해 디아로움 포인트 1만원을 다음 달 2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와 익산다이로움 착한페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사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익산다이로움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혜택과 사용 시 불편하거나 미비한 점을 광범위하게 반영할 계획이다”며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익산다이로움 이용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전국 최대규모의 20% 할인혜택(인센티브 10% + 소비촉진 지원금 10%)을 유지해 전국 지역상권 상품권 중 가장 큰 익산다이로움민의 파격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군산시, 폐지줍는 어르신  
처우개선 나서

군산시는 17일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방한용품과 안전용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물가 폭등으로 인해 하루하루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는 어르신들에게 주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한용품과 새벽과 늦은 밤 안전을 지켜줄 안전 조끼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말부터 각 읍면동을 통해 실시됐으며 민선8기 강임준 군산시장의 폐지줍는 어르신의 처우개선 공약으로 이뤄졌다.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은 최근 고유가로 인해 종이백스 수출물량이 줄어들어 폐지가격이 급락하고 또, 수집량 미izer 줄어들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폐지를 주우며 생활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와 대상자 데이터를 구축하고 시기에 맞춰 안전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아동학대 조기발견 선제적 대응… 합동점검

익산시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구 합동 점검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익산경찰서,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022년 하반기 아동학대 고위험군 아동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대상 가구는 익산경찰서, 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반복신고사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거부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고위험군 아동 13가구다.

가정방문 및 직접대면을 원칙으로 3개 기관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안전과 아동학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아동 보호가 필요한 경우 분리 또는 수사 의뢰 등 적극 조치를 진행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복지서비스와 연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배달의명수’ 대표팀 승리 기원 이벤트

군산시는 17일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표팀 승리를 기원하는 배명의미(주사위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월드컵이 개막하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배달의명수를 이용해 주문할 때마다 1회의 이벤트 응모 기회가 주어진다.

이벤트 참여자에게

는 게임 결과에 따라 3천원(150장), 5천원(150장), 1만원(100장), 2만원(15장)

등 총 415장의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또 다른 150장의 할인쿠폰은 제공된다.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달의명수 앱 배너 및 고객센터(1899-8103), 시 페이스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배달의명수’를 이용해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며, 월드

컵 기간에도 배달은 꼭 ‘배달의명수’를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배달의명수는 지난 10월 말 기준 가맹점 1천580여 개소, 기업자 13만 8천여 명, 누적 매출액 225억원을 달성했다.

2023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업종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태배 시스템, 미밀리지, 신설하기 등 각종 기능을 갖춘 온라인 쇼핑몰로 변모해 나갈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